

몬티셀로 밀러-이계송 또 만났네

'괴물과 나비' 주제 다인종 작가전 리웨이 갤러리 내달 11일부터

리웨이 갤러리는 8월11일부터 7일까지 '괴물과 나비'(Monsters and Butterflies)란 제 다인종 작가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1997년부터 미술사(The Lady Between The Art Agency)를 운영하고 있는 작가 몬티셀로 밀러(Monticello Miller)를 초대한 것으로 참여 작가들은 한국의 이계송, 프란세스카 시프린, 히데오 사카타, 후안 카로스 무노즈-난데즈, 미카엘 지하니안 등이다.



몬티셀로 밀러의 작품.

몬티 밀러는 LA의 많은 작가들 친분을 쌓으며 오랫동안 미국 유럽의 주류화단에서 주목할 전시를 기획해 왔으며 한국인 작가 이계송과 함께 1997년 '랜턴 오브 더 이스(Lantern of the East) 국제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또 다시 이계송을 초대하여 기획한 '괴물과 나비' 전시는 국제적 감각의 작가들이 작품과 함께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전시다. 그림과 글을 통한 창작의 열정을 만나볼 수 있다. '랜턴 오브 더 이스'의 창단멤버 중 히데오 사카타(Hideo Sakata), 전쟁이 아닌 여행지에서 담은 처절한 인간의 모험으로 제타 그랜트를 받은 프란세스카 시프린(Francesca Schifrin), 현재 모카 현대미술관(MOCA)과 패사디나 뮤지엄에서 작

품이 전시중인 거리 미술작가 후안 카로스 무노즈(Juan Carlos Munoz Hernandez), 이집트에서 태어나 러시아에서 미술교육을 받고 프랑스에서 활동하다가 현재 LA에서 살고 있는 아르메니안 작가 미카엘 지하니안(Mikael Djhanian) 등의 작가들이 범세계적인 질문과 답변을 다양한 국제적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보여준다.

작가 이계송은 서라벌 예술대학 졸업하고 일본청추회전, 평택국제아트페스티벌, 국제아트 페스티벌 등 국제전에 참가했으며 현재 경기미술대전 심사위원,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국제아트페스티벌 창



이계송의 작품.

립자로 활동하고 있다. 오픈링 리셉션은 11일 오후 6~9시. 3525 W. 8th St. #216 LA, CA 90005. (213)785-1121 <정숙희 기자>

디지털로 문화를 만들면 좋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흔히 "컴퓨터는 단순한 연장이다, 충실한 머슴이나 마찬가지로"라고 말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기계는 사람을 변모시킨다. 자꾸 쓰다보면 컴퓨터에 끌려 다니기 쉽다. 그리고 결국은 몸과 마음까지 변해 버리고 만다. 디지털 때문에 인간의 뇌 구조가 변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는데, 나중에는 우리의 생각새도 ET처럼 변할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술창작에 있어서, 더구나 인간의 정신과 영성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에 있어서는 더욱 기계의 한계가 뚜렷하다. 작가 최인호는 "이번 작품은 누군가 불러주는 것을 받아 쓴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고백했다. 그 누군가는 물론 하늘이다. 그걸 컴퓨터로 받아쓴다? 신문기자라면 모를까...

그런 점에서 최인호의 신작이 반갑고 고맙다. 전자책에 밀려 종이책이 없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나온 지는 벌써 오래다. 마찬가지로 연극 같은 영세예술도 결국은 없어지고 말거나, 골동품으로 겨우 연명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연극은 끝끝내 아날로그일 수밖에 없다. 영화나 TV 드라마가 기술의 힘을 빌려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연극은 여전히 모든 것을 사람의 몸으로 때워야 하는 처절한(?) 가내 수공업이다. 영원히 디지털이 될 수 없는 운명이다. 사람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

결국은 사람이다. 컴퓨터는 사람을 할 줄 모른다. 인간의 뜨거운 숨결, 땀 냄새가 주는 살아 있는 감동과 생명감을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노릇이다. 컴퓨터가 사랑을 하고, 사람 냄새를 풍기고,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할 사랑할 수 있을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인간들은 앞으로도 지독하게 가난하고 구질구질한(?) 연극을 보고, 번거로우도 음악회에 찾아가서 즐기고...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 냄새가 그림기 때문에,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았을 때의 짜릿한 감동을 느끼고 싶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편지만큼은 손으로 한 자 한 자 꼭꼭 눌러 써서 보내고 싶다.